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열반은 죽음 아닌 완전한 자기해방

온라인 대각성 집회
JAMA

교회와 차세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온라인 새벽 대각성 집회를 연다.

기간은 8월 3일(월)~15일(토)까지로 일요일(9일)을 제외하고 새벽 5시 30분~6시 30분까지 집회가 열린다.

강사로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강민수 목사(시카고레익뷰언약교회)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박반석 목사(뉴저지은혜채플) ●배성호 박사(신경과 전문의) ●최순자 박사(소아과 전문의) ●김춘근 교수(JAMA설립자) ●강순영 목사(JAMA대표)가 나서 중보기도훈련을 겸한 새벽부흥회를 인도한다.

이번 행사는 교회와 개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903) 804-4016, (310) 995-3936
info@gamaglobal.com

가주, 찬양·단체
성경봉독 금지

가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예배 도중 찬양 및 단체 성경봉독을 금지했다.

가주 공공보건국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찬양과 단체 낭독 등의 행위가 6피트 거리 두기 등의 방역 노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미 찬양과 구호 등의 행위가 바이러스 전파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에 버금간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열반이란 말을 불교에서 죽음을 대신해 사용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열반이 죽음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도,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반이란 말에는 죽음이란 소극적인 뜻만이 아닌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를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닌, 조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열반의 자리는 청정무구의 자리입니다. 열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알맹이로 변이된 자리이며,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욕정의 불길 이 청정한 향기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열반을 증득(證得)한다는 것은 부처가 깨달음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며, 부처의 진리 행업을 실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처의 자리가 열반 구경지의 자리이므로 여기에서는 번뇌의 티가 없고 욕심

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른법에 귀의하여 바른 행을 닦아가는 최상승(最上乘)의 과행을 저어 가는 길이 바로 열반의 길입니다.

열반을 증득하는 길은 끊임 없는 고난의 길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의 길이란 것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 속에 자아를 귀의시키는 것입니다.

진리 속의 자아는 무아(無我)의 나, 즉 나 없는 ‘나’ 입니다. ‘나’ 를 이름 짓지 않은 ‘나’ 로서 행함이 ‘참나’ 의 행업이므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증득하기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번뇌를 버리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계(戒)를 지키지 않고서는 참다운 진리인 부처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투로 이룩한 깨달음을 통해 자기해방의 길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해방은 ‘참나’ 를 이룩하는 열반의 광명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안은 흐리고 어둡지만 열반의 눈은 광명의 눈입니다. 이것은 결립 없이 투

과하는 직사의 빛입니다. 굴곡 없이 반사하고, 막힘 없이 관조하는 지혜의 눈이 바로 열반의 빛입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여래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깨끗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세간의 계율은 청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세간의 계율은 있음을 위하는 연고이며, 성품이 결정되지 못한 연고이며, 끝까지 이르지 못한 연고이며,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이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길은 계행의 청정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행이란 속제의 생활에서 지키는 계행이 아니라 진제의 생활에서 지키는 계행입니다. 열반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아닌 것과 같이 생명을 바쳐 증득한 것이므로, 종교 생활의 최후 목적이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청담 스님-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